



## **BRIC Technical Report**

### **제21차 BRIC Poll**

**“이공계살리기” 관련정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공지) 본 보고서는 BRIC에서 기획하고, 조사 및 분석한 자료로써, 부분 혹은 전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자료 출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를 명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전화: 054-279-8198, 팩스: 054-279-5540, E-mail: member@bric.postech.ac.kr

**@Copyright 2004. Made in BRIC**



BRIC Technical Report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문서 제목 : 제21차 BRIC Poll “이공계살리기” 관련정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문서 편집일 : 2004년 2월 14일

문서 작성자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보고서 책임자: 정동수 연구개발실장

자료통계분석: 박지민, 장영옥, 김현남

분석 및 편집: 박지민, 장영옥, 김현남

- 목 차 -

1. 설문목적.....3

2. 설문환경.....3

3. 설문참여자의 성향 .....4

4. 설문결과.....5

    1)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 .....5

    2) 정부정책 중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가 실질적인 효과 가져올 것으로.....7

    3)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은? ..... 10

    4) 이공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13

5. 결과요약..... 15

부록 1. 설문문항 ..... 15

## 1. 설문목적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는 “이공계 살리기” 정책안들로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전문요원 병역특례 복무기간 추가단축, 軍에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확대,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연구원 정년 후 연장계약제 도입,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등이 있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이러한 “이공계 살리기” 정책안에 대해 연구자들의 인식과 반응들을 공유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이공계 정책안들을 연구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 2. 설문환경

- 1-1. 실시기간 : 2004년 1월 28일 ~ 2003년 2월 5일 (9일간)
- 1-2. 참여자 : 총 557명 (BRIC 홈페이지 접속자들 대상으로 함)
- 1-3. 실시방법 : BRIC 홈페이지(<http://bric.postech.ac.kr>)의 BRIC Poll 메뉴 이용
- 1-4.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1-5. 통계프로그램 :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2)

### 3. 설문참여자의 성향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출연연구소 포함)과 대학 소속의 참여자들은 석박사 참여도가 높았고, 기업/바이오벤처와 병원연구소(대학병원 포함) 소속의 참여자들은 석사수료/석사졸업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표1. 설문참여자의 근무기관과 학력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1)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포함)	67  (12%)
2) 기업 / 바이오벤처	107  (19%)
3)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포함)	62  (11%)
<b>4) 대학</b>	<b>287  (51%)</b>
5) 기타	34  (6%)
☞ 귀하의 학력은?	
1) 학사과정	39  (7%)
2) 학사졸	102  (18%)
<b>3) 석사수료/석사졸</b>	<b>254  (45%)</b>
4) 박사수료/박사졸	162  (29%)

표2. 근무기관별, 학력별 설문참여자의 분포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합계
명	국가기관(출연연구소)	0	7	31	29	67
	기업 / 바이오벤처	1	11	73	22	107
	병원연구소(대학병원)	1	12	41	8	62
	대 학	31	61	100	95	287
	기 타	6	11	9	8	34
	합 계	39	102	254	162	557

4. 설문결과

1)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에 대해서 참여자의 50%이상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잘 모른다는 응답도 38%, 전혀 모른다 6%로 나타났다. 근무처별로는 모든 그룹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잘 모른다”로 나타났다(표3).

학력별 분석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표5).

표3. 설문문항 1번






☞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을 알고 계십니까?	
1) 상세히 알고 있다	14  (2%)
<b>2) 어느 정도 알고 있다</b>	<b>280  (50%)</b>
3) 잘 모른다	212  (38%)
4) 전혀 모른다	35  (6%)
5) 관심없다	16  (2%)

표4.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 (근무처별)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기업/ 바이오벤처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대학	기타
%	상세히 알고 있다	6.0	2.8	1.6	2.1	0.0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b>50.8</b>	<b>54.2</b>	<b>54.8</b>	<b>47.0</b>	<b>55.9</b>
	잘 모른다	35.8	34.6	32.3	41.8	32.4
	전혀모른다	6.0	1.9	9.7	7.0	8.8
	관심없다	1.5	6.5	1.6	2.1	2.9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표5.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 (학력별)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	상세히 알고 있다	2.6	0.0	0.8	6.8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b>43.6</b>	<b>44.1</b>	<b>51.2</b>	<b>54.3</b>
	잘 모른다	30.8	46.1	40.9	30.3
	전혀모른다	20.5	6.9	5.1	4.3
	관심없다	2.6	2.9	2.0	4.3
	합 계	100	100	100	100

표6.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 (근무처별 X 학력별) 단위 : 명(%)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국 가 기 관	상세히 알고 있다	-	-	-	4 (13.8)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	2 (28.6)	<b>19 (61.3)</b>	<b>13 (44.8)</b>
	잘 모른다	-	<b>5 (71.4)</b>	11 (35.5)	8 (27.6)
	전혀모른다	-	-	1 (3.2)	3 (10.3)
	관심없다	-	-	-	1 (3.5)
	합 계	-	7 (100)	31 (100)	29 (100)
기 업 바 이 오 벤 처	상세히 알고 있다	-	-	1 (1.4)	2 (9.1)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b>1</b>	<b>7 (63.6)</b>	<b>41 (56.2)</b>	<b>9 (40.9)</b>
	잘 모른다	-	4 (36.4)	27 (37.0)	6 (27.3)
	전혀모른다	-	-	1 (1.4)	1 (4.6)
	관심없다	-	-	3 (4.1)	4 (18.2)
	합 계	1	11 (100)	73 (100)	22 (100)
병 원 연 구 소	상세히 알고 있다	-	-	1 (2.4)	-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	<b>5 (41.7)</b>	<b>22 (53.7)</b>	<b>7 (87.5)</b>
	잘 모른다	-	<b>5 (41.7)</b>	14 (34.2)	1 (12.5)
	전혀모른다	1	1 (8.3)	4 (9.8)	-
	관심없다	-	1 (8.3)	-	-
	합 계	1	12 (100)	41 (100)	8 (100)
대 학	상세히 알고 있다	1 (3.2)	-	-	5 (5.3)
	<b>어느 정도 알고 있다</b>	<b>12 (38.7)</b>	25 (41.0)	44 (44.0)	<b>54 (56.8)</b>
	잘 모른다	11 (35.5)	<b>30 (49.2)</b>	<b>48 (48.0)</b>	31 (32.6)
	전혀모른다	6 (19.4)	5 (8.2)	6 (6.0)	3 (3.2)
	관심없다	1 (3.2)	1 (1.6)	2 (2.0)	2 (2.1)
	합 계	31 (100)	61 (100)	100 (100)	95 (100)

2) 정부정책 중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가 실질적인 효과 가져올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들을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물어보았다. 즉, 1)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2)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5)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을 꼽은 응답자가 4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가 26%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원책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았다(표7).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 280명들과 “잘 모른다”라는 참여자 212명들도 지원책들 중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이 실효성이 있다고 많이 응답하였다(표8).

본 문항에 대한 결과는 근무처별, 학력별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표9, 표10). 그러나, 기업/바이오벤처 소속 박사수료/박사졸업자 참여자들 중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가 이공계 지원책들 중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11).

표7. 설문문항 2번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1)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59 ■ (10%)
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48 ■ (8%)
<b>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b>	<b>248 ■ (44%)</b>
4)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145 ■ (26%)
5)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57 ■ (10%)

표8.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지원책 (인지도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80명)	잘 모른다 (212명)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9.3	13.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10.4	5.7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b>44.6</b>	<b>44.8</b>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22.9	28.8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12.9	7.6
합 계		100 %	100 %

표9.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지원책 (근무처별)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기업/ 바이오벤처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대학	기타
%	1)이공계 대학생/대..	11.9	5.6	11.3	12.9	2.9
	2)병역특례 복무기..	4.5	12.2	6.5	8.0	14.7
	3)과학기술전공자 ..	<b>41.8</b>	<b>38.3</b>	<b>48.4</b>	<b>47.0</b>	<b>41.2</b>
	4)이공계 공직진출..	31.3	28.0	22.6	24.0	32.4
	5)과학기술인 포상..	10.5	15.9	11.3	8.0	8.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1)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 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 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 4)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 5)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표10.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지원책 (학력별)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석사졸	박사수료/박사졸
%	1)이공계 대학생/대..	12.8	12.8	11.8	6.8
	2)병역특례 복무기..	18.0	9.8	5.5	10.5
	3)과학기술전공자 ..	<b>41.0</b>	<b>42.2</b>	<b>46.5</b>	<b>43.8</b>
	4)이공계 공직진출..	20.5	25.5	26.0	27.8
	5)과학기술인 포상..	7.7	9.8	10.2	11.1
합 계		100	100	100	100

- 1)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 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 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 4)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 5)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표 11.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지원책 (근무처별 X 학력별)

단위 : 명 (%)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국 가 기 관	1)이공계 대학생/대..	-	-	4 (12.9)	4 (13.8)
	2)병역특례 복무기..	-	1 (14.3)	1 (3.2)	1 (3.5)
	3)과학기술전공자 ..	-	<b>3 (42.9)</b>	<b>13 (41.9)</b>	<b>12 (41.4)</b>
	4)이공계 공직진출..	-	3 (42.9)	10 (32.3)	8 (27.6)
	5)과학기술인 포상..	-	-	3 (9.7)	4 (13.8)
	합 계	-	7 (100)	31 (100)	29 (100)
기 업 바 이 오 벤 처	1)이공계 대학생/대..	-	1 (9.1)	5 (6.9)	-
	2)병역특례 복무기..	-	3 (27.3)	6 (8.2)	4 (18.2)
	3)과학기술전공자 ..	<b>1</b>	<b>5 (45.5)</b>	<b>29 (39.7)</b>	6 (27.3)
	4)이공계 공직진출..	-	1 (9.1)	19 (26.0)	<b>10 (45.5)</b>
	5)과학기술인 포상..	-	1 (9.1)	14 (19.2)	2 (9.1)
	합 계	1	11 (100)	73 (100)	22 (100)
병 원 연 구 소	1)이공계 대학생/대..	1	1 (8.3)	5 (12.2)	-
	2)병역특례 복무기..	-	-	3 (7.3)	1 (12.5)
	3)과학기술전공자 ..	-	<b>7 (58.3)</b>	<b>19 (46.3)</b>	<b>4 (50.0)</b>
	4)이공계 공직진출..	-	3 (25.0)	10 (24.4)	1 (12.5)
	5)과학기술인 포상..	-	1 (8.3)	4 (9.8)	2 (25.0)
	합 계	1	12 (100)	41 (100)	8 (100)
대 학	1)이공계 대학생/대..	3 (9.7)	11 (18.0)	16 (16.0)	7 (7.4)
	2)병역특례 복무기..	5 (16.1)	6 (9.8)	3 (3.0)	9 (9.5)
	3)과학기술전공자 ..	<b>13 (41.9)</b>	<b>24 (39.3)</b>	<b>51 (51.0)</b>	<b>47 (49.5)</b>
	4)이공계 공직진출..	8 (25.8)	13 (21.3)	26 (26.0)	22 (23.2)
	5)과학기술인 포상..	2 (6.5)	7 (11.5)	4 (4.0)	10 (10.5)
	합 계	31 (100)	61 (100)	100 (100)	95 (100)

- 1)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 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 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 4)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 5)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3)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28명으로 전체 58%로 나타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 항목의 응답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학사과정 35.9%, 학사졸 57.8%, 석사수료/석사졸 61.0%, 박사수료/박사졸 61.7%)(표12, 표15).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36%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들과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이공계 지원책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8%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13).

표12. 설문문항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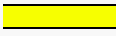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1)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4   (0%)
2)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6  (36%)
<b>3)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b>	<b>328  (58%)</b>
4) 모르겠다	16   (2%)
5) 관심없다	3   (0%)

표13.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생각 (인지도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80명)	잘 모른다 (212명)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1.4	0.0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41.8	37.3
	<b>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b>	<b>56.8</b>	<b>58.5</b>
	모르겠다	0.0	3.8
	관심없다	0.0	0.5
합 계		100 %	100 %

표 14.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생각 (근무처별)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기업/ 바이오벤처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대학	기타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0.0	0.9	0.0	1.1	0.0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40.3	27.1	37.1	41.5	23.5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b>56.7</b>	<b>70.1</b>	<b>59.7</b>	<b>54.0</b>	<b>67.7</b>
	모르겠다	3.0	0.9	3.2	2.8	8.8
	관심없다	0.0	0.9	0.0	0.7	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표 15.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생각 (학력별)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0.0	0.0	0.8	1.2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b>48.7</b>	39.2	35.4	35.2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35.9	<b>57.8</b>	<b>61.0</b>	<b>61.7</b>
	모르겠다	15.4	2.9	2.0	1.2
	관심없다	0.0	0.0	0.8	0.6
	합 계	100 %	100 %	100 %	100 %

표 16.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생각 (근무처별 X 학력별)

단위 : 명 (%)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국 가 기 관	1)근본적인 해결책이..	-	-	-	-
	2)근본적인 해결책은..	-	<b>5 (71.4)</b>	10 (32.3)	12 (41.4)
	3)별다른 효과가 없..	-	2 (28.6)	<b>20 (64.5)</b>	<b>16 (55.2)</b>
	4)모르겠다	-	-	1 (3.2)	1 (3.5)
	5)관심없다	-	-	-	-
	합 계	-	7 (100)	31 (100)	29 (100)
기 업 바 이 오 벤 처	1)근본적인 해결책이..	-	-	-	1 (4.6)
	2)근본적인 해결책은..	1	5 (45.5)	21 (28.8)	2 (9.1)
	3)별다른 효과가 없..	-	<b>6 (54.6)</b>	<b>51 (69.9)</b>	<b>18 (81.8)</b>
	4)모르겠다	-	-	1 (1.4)	-
	5)관심없다	-	-	-	1 (4.6)
	합 계	1	11 (100)	73 (100)	22 (100)
병 원 연 구 소	1)근본적인 해결책이..	-	-	-	-
	2)근본적인 해결책은..	1	3 (25.0)	16 (39.0)	3 (37.5)
	3)별다른 효과가 없..	-	<b>9 (75.0)</b>	<b>23 (56.1)</b>	<b>5 (62.5)</b>
	4)모르겠다	-	-	2 (4.9)	-
	5)관심없다	-	-	-	-
	합 계	1	12 (100)	41 (100)	8 (100)
대 학	1)근본적인 해결책이..	-	-	2 (2.0)	1 (1.1)
	2)근본적인 해결책은..	<b>15 (48.4)</b>	23 (37.7)	42 (42.0)	39 (41.1)
	3)별다른 효과가 없..	11 (35.5)	<b>36 (59.0)</b>	<b>54 (54.0)</b>	<b>54 (56.8)</b>
	4)모르겠다	5 (16.1)	2 (3.3)	-	1 (1.1)
	5)관심없다	-	-	2 (2.0)	-
	합 계	31 (100)	61 (100)	100 (100)	95 (100)

- 1)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 2)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 4) 모르겠다
- 5) 관심없다

4) 이공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연구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수렴창고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설문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공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적극적/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참여자는 81명으로 전체 14%로 나타났고,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자는 259명으로 46%, 경험 없다는 응답자는 210명으로 3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가지고는 있으나 참여의 기회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7).

학력별 교차분석에서, 박사수료/박사졸 그룹에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3%로 타그룹에 비해 가장 높았고, “경험없다”와 “관심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타그룹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19).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근무처소속의 박사수료/박사졸업자 참여자들과 대학소속의 참여자 대부분이 이공계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설문문항 4번

☞ 이공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5 █ (4%)
2)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6 █ (10%)
<b>3)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다</b>	<b>259 █ (46%)</b>
4) 경험없다	210 █ (37%)
5) 관심없다	7 █ (1%)

표 18.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유무 (근무처별)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기업/ 바이오벤처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대학	기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5	4.7	0.0	5.6	2.9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7.9	10.3	12.9	7.3	11.8
<b>%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다</b>	<b>43.3</b>	35.5	40.3	<b>52.6</b>	<b>47.1</b>
경험없다	34.3	<b>48.6</b>	<b>46.8</b>	32.4	38.2
관심없다	0.0	0.9	0.0	2.1	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표 19.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유무 (학력별)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0.0	3.9	4.3	6.2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2.8	5.9	10.6	11.1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 회가 없었다	<b>46.2</b>	<b>52.0</b>	40.6	<b>52.5</b>
	경험없다	41.0	38.2	<b>42.5</b>	29.0
	관심없다	0.0	0.0	2.0	1.2
	합 계	100	100	100	100

표 20.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유무 (근무처별 X 학력별) 단위 : 명 (%)

		학사과정	학사졸	석사수료/ 석사졸	박사수료/ 박사졸
국 가 기 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1 (3.2)	2 (6.9)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 (14.3)	5 (16.1)	6 (20.7)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	<b>4 (57.1)</b>	12 (38.7)	<b>13 (44.8)</b>
	경험없다	-	2 (28.6)	<b>13 (41.9)</b>	8 (27.6)
	관심없다	-	-	-	-
	합 계	-	7 (100)	31 (100)	29 (100)
기 업 바 이 오 벤 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 (9.1)	3 (4.1)	1 (4.6)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8 (11.0)	3 (13.6)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	3 (27.3)	26 (35.6)	<b>9 (40.9)</b>
	경험없다	<b>1</b>	<b>7 (63.6)</b>	<b>36 (49.3)</b>	8 (36.4)
	관심없다	-	-	-	1 (4.6)
	합 계	1	11 (100)	73 (100)	22 (100)
병 원 연 구 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	-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 (8.3)	6 (14.6)	1 (12.5)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	3 (25.0)	16 (39.0)	<b>6 (75.0)</b>
	경험없다	<b>1</b>	<b>8 (66.7)</b>	<b>19 (46.3)</b>	1 (12.5)
	관심없다	-	-	-	-
	합 계	1	12 (100)	41 (100)	8 (100)
대 학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4.9)	7 (7.0)	6 (6.3)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9.7)	4 (6.6)	8 (8.0)	6 (6.3)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b>17 (54.8)</b>	<b>37 (60.7)</b>	<b>44 (44.0)</b>	<b>53 (55.8)</b>
	경험없다	11 (35.5)	17 (27.9)	36 (36.0)	29 (30.5)
	관심없다	-	-	5 (5.0)	1 (1.1)
	합 계	31 (100)	61 (100)	100 (100)	95 (100)

\*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다

## 5. 결과요약

바이오펠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이공계지원책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52%, 잘 모른다는 응답 44%로 나타나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들도 상당수였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아, 이공계 문제의 당사자인 연구자들은 정책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하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는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라는 응답율이 높아, 과학기술분야 배출인력의 수요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에 대한 현장의 연구자들의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록 1. 설문문항

Q1.(메인설문문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을 알고 계십니까?

- 1) 상세히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3) 잘 모른다
- 4) 전혀 모른다
- 5) 관심없다

Q2.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1.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2.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및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3. 과학기술전공자 기업 채용목표제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책)
4.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5.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강화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Q3.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1.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2.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4. 모르겠다
5. 관심없다

Q4. 이공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다.
4. 경험없다.
5. 관심없다.

Q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1. 국가기관 (출연연구소 포함)
2. 기업 / 바이오벤처
3. 병원연구소 (대학병원 포함)
4. 대학
5. 기타

Q6. 귀하의 학력은?

1. 학사과정
2. 학사졸
3. 석사수료/석사졸
4. 박사수료/박사졸

<참고 사이트 - 정부의 이공계 지원책 및 관련기사>

[이공계 지원책 참고 사이트](#) :

[http://gene.postech.ac.kr/bbs/view.php?id=job&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2](http://gene.postech.ac.kr/bbs/view.php?id=job&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2)

[이공계 장학금 530억 지원 .. 신입생 5300명 포함 1만2천명 대상 \(04/01/25 한국경제\)](#) :

<http://blog.naver.com/skysobluesky.do?Redirect=Log&logNo=60000656486>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 \(04/01/26 연합뉴스\)](#) :

[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2/20040126\\_22.html](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2/20040126_22.html)

[병역면제 大學연구요원 지방대출신 30% 할당 \(04/01/20 서울신문\)](#) :

[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2/20040120\\_2.html](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2/20040120_2.html)

[훈에 "과학기술장교" 제도 도입 추진 \(04/01/12 연합뉴스\)](#) :

[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1/20040112\\_6.html](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rnews/200401_1/20040112_6.html)

[과학계, 기술인 퇴직연금제 국회처리 주목 \(03/12/24 동아일보\)](#) :



[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news/200312\\_2/20031224\\_1.html](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news/200312_2/20031224_1.html)

[이공계 지원 특별법 연내 상정..年 2540억 지원 \(03/12/17 한국경제\)](#) :

[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news/200312\\_2/20031217\\_5.html](http://bric.postech.ac.kr/trend/bionews/knews/200312_2/20031217_5.html)